



행복 충남

국민 만

행복한 복지충남이 만듭니다



행복 중만

contents

기획주제

사회서비스와 돌봄_003

정책이슈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과제_005

충청남도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_008

실천이슈

종합재가센터의 발전방향_010

부여공동육아나눔터를 생각하며_012

현장속으로

사비개비 부여공동육아나눔터_013

너무나 고마운 은인 "다함께돌봄센터"_014

서로를 치유하는 돌봄, 요양보호사 이야기_016

우리 아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그 날까지_018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인덕 교수

사회서비스와 돌봄

코로나19 상황은 그간 우리 삶 속에서 간과했던 문제점을 낱알이 보여주고 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으로 하루 종일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지내며 아동 돌봄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달에 한번 형식적으로 찾아뵙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자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더욱 소원해진 부모님과의 관계에 죄스러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부모들은 어릴 적 적절한 돌봄을 받아보지 못하였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기에 부모가 되었어도 어떻게 아이를 돌보고 부모 역할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와 직장으로 흩어져 저녁에 잠깐 얼굴을 볼 때에는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어떻게 아이들 시간을 관리하고, 돌보고 교육해야 하는지 부모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르신들은 용돈 조금 보내드리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찾아뵙는 것으로 족했었고, 그것이 최선의 효도라고 자녀들은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뵙지도 못하고 있으며, 무엇하나 제대로 해드릴 것도 마땅치 않아 마음 아파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것을 이번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이제 복지영역에서 돌봄 서비스의 역할을 생각해보자. 그간 돌봄서비스 역시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아니 부양의무자인 아이들 부모와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제공해 오지 않았나 하는 자성의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제도에서 서비스 제공은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나은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였다. 하지만 복지 서비스가 산업화된 지금은 서비스의 이상적 목적은 사라지고 단순한 전달에 집착하고 있다. 마치 새벽배송으로 물건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처럼 말이다. 누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는 비즈니스 거래자처럼 관계를 배제하고 교환만 할 뿐이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단위 시간당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받게 되었고, 정책 입안자나 행정가들은 1인당 최대한 많은 아동과 어르신을 배당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들은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관련 서류와 감정까지도 함께 싸가지고 나오며, 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형성, 상담보다는 서류작성 등 행정 처리에 갑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럼 돌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첫째, 사회서비스 돌봄 대상자들이 되기 전에 스스로 예방하고,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하자. 어르신들이 기능과 이웃관계가 약화되기 전에 스스로 돌봐줄 수 있는 이웃을 연결해주고,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기에 진정한 인간관계의 복지철학과 능동적인 사회복지가 함께 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노년에 들어갈 값비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 돈을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 공동체 형성에 먼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말자는 이야기이다. 즉, 복지대상자가 되기 전에 보통의 삶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기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성만을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과 어르신께 보다 행복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종사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인간성을 핵심으로 제공받는 자와 제공하는 자의 관계회복과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보장,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서비스 제공자의 채용에서도 복지대상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행정업무의 과감한 삭감이다. 사회서비스 본연의 업무에 80%의 역량을 쓰고, 나머지 20%만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다. 기록을 위해 면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산출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서비스 대상자가 존엄과 행복에 이르도록 사회서비스 전달방법과 복지실천기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를 사정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이 별개가 아닌 원팀(one-team)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넷째,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전달함에 혁신이 필요하다. 우선, 새로운 방식으로 대상자를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국민건강보험의 직장 사업장은 2019년말 기준 64,710개소(A)이며, 가입자는 711,320명(a), 피부양자는 817,390명(합계 1,528,710명)이다. 이에 반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2019년말 기준 103,029개소(B)에 가입자는 515,708명(b)이다. 사업장 기준으로 볼 때 38,319개소(B-A), 가입자 기준으로 볼 때 195,612명(a-b)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별 사회보험의 목적과 설립취지의 차이, 적용제외 등의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가 너무 크다. 더구나 사

회보험의 보험료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 통계연보, 2019년기준).

한편,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 중 사회적 입원 비중은 보건복지부의 추정에 따르면, 27.7~39.6%(2020년 1월 3일자 조선일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의료라고 하는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의료적 치료보다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이며, 최근 제공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주 대상자이다. 하지만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대상자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낙인이 되는데 주위 사람들의 낙인보다 대상자 본인 스스로 낙인에 대한 우려, 불편함, 체면 등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조차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필 방법이 필요하다. 요컨대,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충청남도 사회보장통계의 일치, 조정이 필요하며 지역별, 대상자별 차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찾아낸 숨겨진 사회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주변에서 삶의 고단한, 불편한 부분까지 헤아려 예방적 도움을 드려야하는 어르신과 아이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복지예산의 흐름과 자원분포의 파악이 중요하다. 복지 분야별, 대상자별 예산집행 비율을 분석하여 어떤 분야와 어느 대상자가 많고, 적은 혜택을 보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상자와 분야를 교차하여 분석하고, 재정 흐름을 살펴본다면 어디에서 막히거나 집중되고 있는지, 어떤 곳에 예산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지 등이 한눈에 들어오게 된다. 이를 도 전체에서 읍면동까지 분석하여 복지행정에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파악과 사각지대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 기존 행정구역 중심의 복지업무처리에서 벗어나 생활 중심적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자원배분과 서비스 제공자 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20년 충남 사회서비스원의 발족은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시작이었다. 2021년 올해는 사회서비스의 근본적 혁신의 해로, 복지충남의 비전을 제시하고 인간관계 중심의 휴먼-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년이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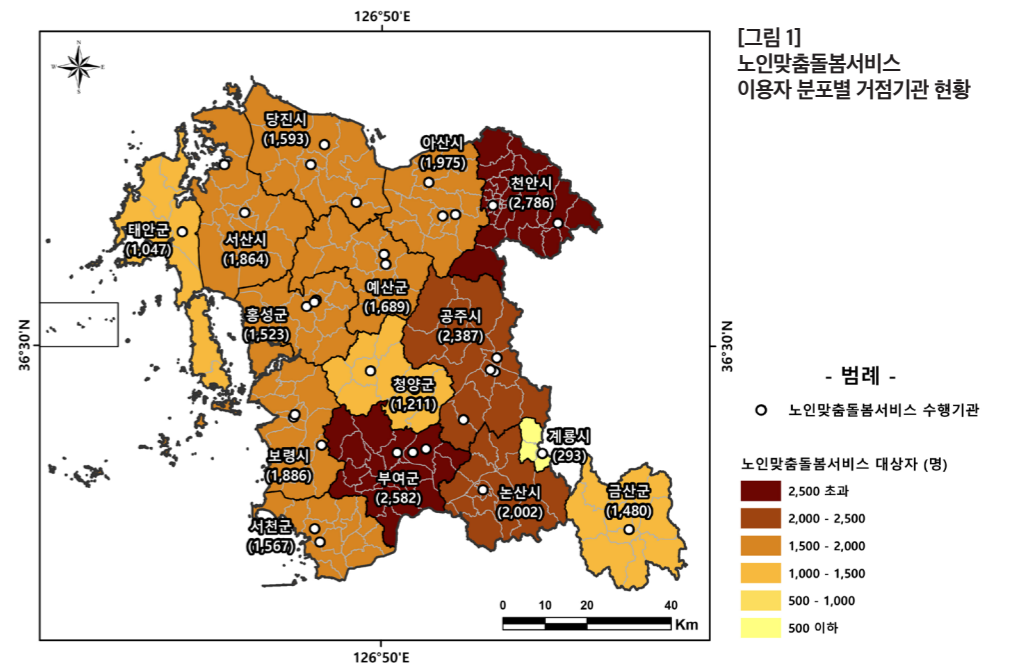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과제¹⁾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팀
정덕진 연구위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인구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1년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돌봄 공백과 정신건강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돌봄은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이다. 노인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작년 1월부터 시작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돌봄 기본 종합, 단기가사, 자원연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 6종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서비스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충청남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 과제와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노인돌봄의 정의와 주안점

돌봄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원하는 행위이며(최영준 외, 2013), 노인돌봄서비스는 스스로 돌 볼 수 없거나 사회참여가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이다(김찬우, 2014). 돌봄은 단순히 먹이기, 씻기 등의 기능적 측면이 아니라 배려, 상호존중과 신뢰와 같은 '관계적 성격'을 가진다(Held, 2017). 또한 누가 돌봄을 책임지



1)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회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정덕진·이정량·이용재(2020). 충청남도 노인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고 제공하며, 돌봄이 잘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돌봄관계에 속한 양자 모두를 지원하는 문제는 사회적 책임과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다(Kittay, 2016). 돌봄의 정의에서 살펴볼 때, 돌봄을 이용하는 노인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일에 대한 만족도가 동등하게 중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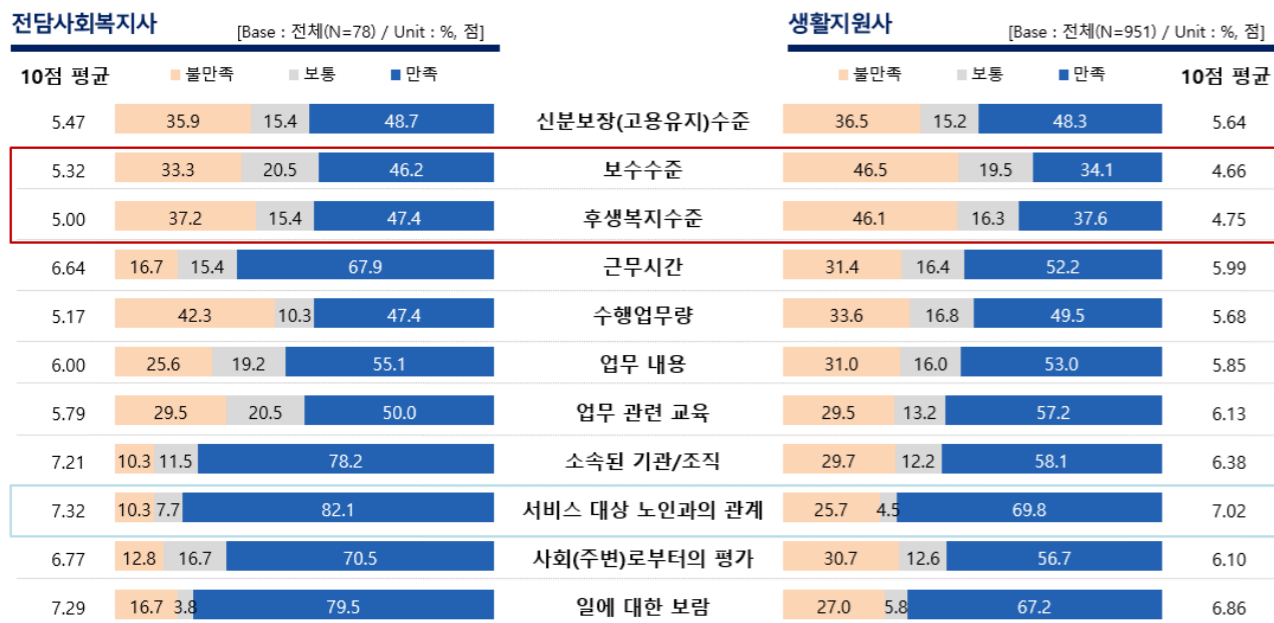
충청남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독거·고령부부 가구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일상 생활 지원, 사회참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역별 수행기관에 소속된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노인 가구를 방문, 서비스를 계획하고 안부확인, 가사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충청남도 총 34개의 수행기관에서 약 25,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600여명의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2020년 3월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실태 주요 조사결과²⁾ 를 보면, 노인들이 느끼는 서비스 만족정도에 대해서 '만족함(대체로 만족+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82.1%, 78.1%로 나타나, 노인들이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기여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78.2%, 73.6%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의 근무만족도에 대해서는[그림 2 참고] 두 집단 모두 '서비스 대상 노인과의 관계'에서 만족 정도가 각각 82.1%, 6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점 만점 각 7.32점, 7.02점). 반면 '후생복지수준', '보수수준'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담사회복지사의 후생복지수준 5.0점, 생활지원사의 보수수준 4.66점).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자가 지나치게 많이 배정되었거나 사례관리 등 직접 서비스 외에도 문서관리, 행정업무 등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처우수준은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어르신들의 농사일로 근무시간을 맞추기 어렵거나 활동거리가 멀어서 유류비 등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도 호소하였다.

[그림 2] 노인맞춤돌봄사업 근무 만족도



2)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수행기관 1,029명(전담사회복지사 78명, 생활지원사 951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8일부터 8월 6일까지 1개월간 진행하였다.

셋째, 코로나 19로 사회복지기관, 마을회관 등 이용제한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되는 상황이므로, 노인이 거주하는 마을 동네 단위에서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물리치료와 재활서비스의 경우,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이며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보건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 건강을 위해, 자조모임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을 차츰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과제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독거노인, 취약 노인의 지역 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고 신체적 기능 향상과 정신건강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비스 이용노인과 제공인력이 좋은 돌봄 관계를 형성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제와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이용노인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고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처우수준에서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개선, 전문성 향상과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 1인당 배정되는 노인 수의 적정 여부는 업무의 양과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전담사회복지사가 적정하게 담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지원사 및 이용 노인이 배정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돌봄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양·시간은 대체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점돌봄군의 서비스 양·시간에 대해서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시 적정한 양과 시간의 안배가 필요하다. 중점돌봄군 중 만성질환이 심하고 위기상황에서의 개입이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노인 커뮤니티케어 등 타 제도에 의한 가사지원, 보건 의료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셀프케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함에도, 수급자 유인 행위 등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자로 진입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 19로 사회복지기관, 마을회관 등 이용제한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되는 상황이므로, 노인이 거주하는 마을 동네 단위에서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물리치료와 재활서비스의 경우,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이며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보건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 건강을 위해, 자조모임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을 차츰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촌지역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이동지원,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문제점 개선과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고, 서비스 공급 자원 및 인프라는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로 현재 가용한 자원,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적 자원 또한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에 의한 돌봄 확산을 위해서는 가족, 이웃 등 비공식적 자원 체계의 협력적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찬우.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규명 및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23(2), 121-144
 최영준 외. (2013). 돌봄 기능 관련 복지사업 심층 분석. 보건복지부
 Held, V.(2017). 돌봄:돌봄윤리. 김희강, 나상원(번역). 서울: 박영사.(원전은 2006에 출판)
 Kitty, E. F.(2016). 돌봄: 사랑의 노동-여성, 평등 그리고 의존에 관한 에세이. 김희강, 나상원(번역). 서울:박영사.(원전은 1999에 출판)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팀
이정량 부연구위원

충청남도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2007년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후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장애 1급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현재는 모든 등록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하여 수급자격 및 등급이 결정된다. 다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며,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¹⁾.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목적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 감소를 통한 삶의 질 증진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돌봄은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돌봄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은 배우자 39.4%, 부모 21.1%, 자녀 16.6%, 형제·자매 등 기타 가족 4.8%의 순으로 대부분 가족 구성원(81.9%)이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7).

충청남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장애인 등록 인구수는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총 133,976명이며 장애인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76,638명, 여성이 57,338명이다. 장애 정도별로는 심한 장애인이 49,524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84,452명이며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62,968명, 청각장애인이 22,317명, 지적장애인이 12,139명, 시각장애인이 12,060명, 뇌병변장애인이 10,950명 순이다(충청남도, 2020).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기관 51개소, 제공인력은 3,542명, 서비스 이용 장애인 수는 4,134명이다. 충청남도 지역별 65세 미만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활동

충청남도 지역별 65세 미만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

구분	65세 미만 장애인 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	이용률
충청남도	64,638	4,134	6.4
천안시	16,060	1,226	7.63
공주시	4,222	265	6.28
보령시	4,016	170	4.23
아산시	8,451	484	5.73
서산시	4,775	277	5.8
논산시	4,944	346	7
계룡시	843	64	7.59
당진시	5,056	371	7.34
금산군	1,921	138	7.18
부여군	2,811	171	6.08
서천군	2,094	81	3.87
청양군	1,213	56	4.62
홍성군	3,168	206	6.5
예산군	2,933	183	6.24
태안군	2,131	96	4.5

자료: 충청남도(2020)

지원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천안시(7.63%), 계룡시(7.59%), 당진시(7.34%), 금산군(7.18%), 논산시(7.00%), 홍성군(6.50%), 공주시(6.28%), 예산군(6.24%), 부여군(6.08%), 서산시(5.80%), 아산시(5.73%), 청양군(4.62%), 태안군(4.50%), 보령시(4.23%), 서천군(3.87%) 순이다(충청남도, 202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지 않은 65세 이상 장애인 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가족 구성원의 돌봄,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지역의 지리·환경적 특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을 판정하는 종합조사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일부지역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까지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여 인력 양성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낮은 처우 등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력이 있어도

서비스 이용자의 거주지가 지리적으로 먼 외곽 지역이나 섬 지역 등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김선미 외, 2020). 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하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 판정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평생 가족구성원이 돌봄을 담당하거나 사각지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 수를 확대하거나 순회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일자리의 질 향상과 젊은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 판정을 위한 종합조사의 지표 구성도 장애유형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세분화하여 많은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은 노동의 한 유형이지만, 노동 그 이상이고 관계적이다(Held, 2016). 더욱이 장애인 돌봄은 장애유형별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충청남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자신의 거주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미, 정덕진, 이정량, 이영화, 조지용, 신희정(2020),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계획 수립 연구, 충청남도의회·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 VHeld, V.(2017). 돌봄·돌봄윤리. 김희강, 나상원(번역). 서울: 박영사.(원전은 2006에 출판)

1)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https://www.ableservic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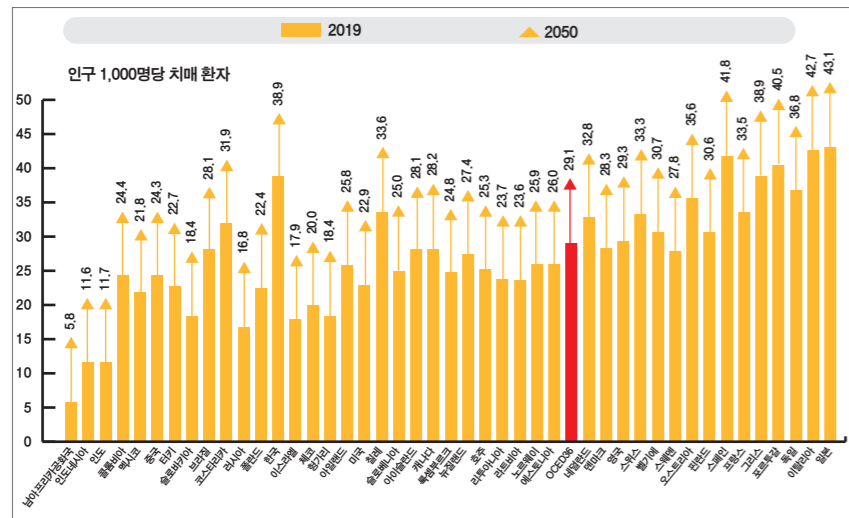


충남사회서비스원 천안종합재가센터
최영자 센터장

○ 종합재가센터의 발전방향

평균수명의 증가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노인부양이라는 새로운 신사회적위험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Health at a Glance, 2019). 인구 고령화는 근로 수명을 연장하려는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에서 잠재적인 노동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의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국가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듯 인구고령화는 노동 집약적인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종사자는 부족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국가들이 숙련된 장기요양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치매는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에 걸린 사람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2050년까지 모든 국가의 치매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20명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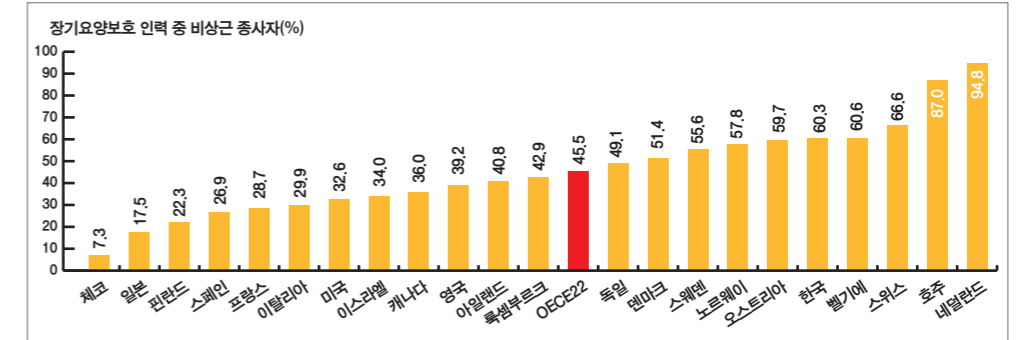
<그림 1-1> 치매유병률 추정치, 2019년 및 2050년



출처: Health at a Glance, 2019.

익추구를 목적하는 하는 행위에 의해 서비스 질이 악화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가족이나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느슨했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법률 등에 기반 하여 외부 강제 규제를 두고 있다. 즉 장기요양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는 좋은 품

<그림 1-2> 비상근로 일하는 장기요양보호종사자 비중, 2016년



출처: Health at a Glance, 2019.

질을 선택하고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낙오되고 있다. 그렇지만 OECD는 인구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요양원과 장기요양보호 시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설의 거주자들은 재가서비스 이용자들보다 더 허약하고 아프며 의료관련 감염과 욕창을 포함한 환자 안전 사건 발생의 여러 가지 다른 위험요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Health at a Glance, 2019).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은 가능한 오랫동안 집안에 머물기를 원하며, 2007년과 2017년 사이에 집에서 서비스를 받은 장기요양보호 수급자의 비율이 64%에서 68%로 증가(OECD, 2020)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도 보건복지부(2019)의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70.3%는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29.7%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는 노동집약적인 서비스로 기본적인 간병보다 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시간 보내며, 장기요양보호 분야의 일자리 중 약 9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크지만 급여가 낮고 비상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재가센터는 기본적으로 이런 요양보호사들에게 시급제 위주의 임금형태를 개선하여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 운영이라는 큰 벽 앞에 여전히 시급제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있고, 이들 또한 민간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맞는 서비스 이용자를 고르기 위해 무작정 대기를 하고 있다. 한 명의 서비스 이용자를 매칭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수십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도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기관에서 기피하는 서비스 이용자를 끌어안고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종합재가센터는 어떻게 해야만 센터의 순기능을 지켜나가면서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답은 먼저 시작한 기관들에게서 나오는 해결방안과 대응소이다.

첫째는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서비스 이용자들은 재가에서 서비스를 받다가 주야간보호, 요양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통합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서비스 대상자가 일정부분 생긴다면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누어서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할 것이다. 종합재가센터의 근본 취지처럼 급여가 안정된다고 하면 민간기관에서 꺼려하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최소한 6개월에 한번은 대상자를 교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월급제 요양보호사가 두 명 이상일 때 가능한 일이지는 하다. 셋째는 최소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맞춤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방문요양을 함께 서비스 하게 된다면, 국고보조금으로 급여에 대한 부분도 일부 맞춰질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서비스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서비스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재가센터의 역할을 민간재가서비스 기관과 동일하게 보기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서비스를 잇는' 나의 역할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종합재가센터와 함께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한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공동나눔육아



부여공동육아나눔터
정지나 팀장

부여공동육아나눔터를 생각하며

부여공동육아나눔터는 2018년 12월 개소한 부여 최초 공동육아나눔터이다. 우리 기관의 목적은 부여주민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를 위해 이웃 간의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중심의 자녀양육환경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여지역은 지역 내 토박이문화를 적극 활용하여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품앗이로는 '사비깨비'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으로 '시장놀이'로 부여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아나바다 운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 부여공동육아나눔터라고 본다. 각자의 재능도 나눌 수 있으며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지역 내 육아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를 1-2명 정도 양육하는 환경에서 아이와 부모의 사회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품앗이 활동 중 아이들의 표정과 부모의 표정이 너무 밝고 모두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해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품앗이 활동의 변화가 필요했다. 이

를 위해 비대면 활동으로 신청자에 한해 체험 키트를 제작하여 품앗이 활동 가족에게 제공하였다. '슬기로운 집콕생활', '비대면 가족사랑선물', '비대면 설마중'과 같은 주제로 진행하였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각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만남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새로운 집콕놀이가 되어 공동육아나눔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공동육아나눔터는 부여 지역의 '소확행'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어려움은 존재한다. 첫째, 종사자 처우와 관련이 있다. 출장이나 기타 수당이 없는 실정이며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도 간과할 수 없다.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질을 확보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종사자 처우개선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인력부족이다. 현재 센터장이 전반적 운영을 맡고 있으며, 3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2명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있어 한계가 있다. 셋째, 홍보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부족이다. 지자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예산을 확보한 후 기관의 안정적 정착이 가능하다고 본다. 더 나은 공동육아나눔터 발전을 위해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 어려움을 인식하여 해결책이 가능한 빨리 나오길 기대한다.



공동육아나눔터



부여공동육아나눔터
황수지

사비깨비 부여공동육아나눔터

우는 것들을 부여에서는 자연스럽게 역사교육을 할 수 있어요. 공육(공동육아나눔터)이 가장 좋은 것은 나를 위한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 오면 모든 것을 잊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끼리끼리 놀게 되니깐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의 아이가 외동인데 여기에 오면 친구를 만나게 되니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Q. 올해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A. 저희는 올해도 체험위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있지만 기동력이 떨어지지만 계속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에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소정의 재료비와 활동비를 지원해 주셔서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활용하는 부모님을 보시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Q.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에 있어 제안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지요?

A. 공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도 쓰고 보고서도 써야 하거든요. 일반 부모님들은 이 작업을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공동육아를 하던 그룹이 멘토가 되어 새로운 그룹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기관 차원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품앗이 그룹에 간략한 계획서 쓰기, 보고서 쓰기 교육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팀장님께서 많은 정보를 공유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저희 품앗이 육아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 되요. 현재까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 바램이 있는데요. 다른 그룹이 생겨 품앗이가 생겨 서로 교류하면 좋겠습니다. 서류 작업에 있어서도 간소화되면 좋겠습니다.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으면 더 활발하지 않을까 합니다.

Q. 사비깨비 부여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A. 공동육아나눔터에 오게 된 계기는 정지나팀장님으로 인해 소개를 받았습니니다.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일단 아는 사람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요. 저는 오픈할 때 첫 등록된 회원이고, 품앗이 활동도 하였습니다. 저의 아이가 5세부터 품앗이활동을 했고요.

Q. 품앗이를 구성하시고 어떤 일을 함께 했는지요?

A. 저희는 체험 품앗이를 하였습니다. 갯벌체험, 밭에서 꽃 심기(가족 중 농원사업을 하심), 화분만들기,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정보교환 등을 활발하게 진행했었습니다. 품앗이 활동이 좋은 게 모래놀이나 갯벌체험을 하는 경우 나 혼자 아이를 데리고 체험했다면 제한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이 함께 하다 보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도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좀 주춤했지만, 엄마들의 정보공유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키트를 얻어 아이와 함께 만들어서 후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주변에 도서관, 문화원, 박물관, 생태공원, 다양한 관광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요, 서로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책에서 배





신월다함께돌봄센터
정지희

너무나 고마운 은인, '다함께돌봄센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10세(초3년), 6세(유치원) 아이들을 둔 엄마이고 저희 가정은 맞벌이 가정입니다. 마흔이 넘는 나이에 두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체력적인면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점은 부모가 출근 후 아이들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장기간 방학이 이어질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정이나 시댁 쪽 모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어느 곳에도 도저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저희 부부는 아이 돌봄으로 인해 연차나 휴가를 누가 언제 사용할지의 문제로 종종 부부싸움을 하곤 합니다.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부모의 삶에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지만 돌봄 공백은 아이를 키우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Q. 다함께돌봄센터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A.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 아이 보낼 학원이나 돌봄 등에 관하여 항상 습관처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월다함께돌봄센터를 알게 되었고, 제가 1번으로 신청접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돌봄 센터가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선택의 여지없이 등록하였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학교나 유치원 방학기간 중 돌봄조차 이뤄지지 않는 몇 주의 기간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회사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해결해준 너무나 고마운 은인이 바로 "다함께 돌봄센터"였습니다.

Q.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점은 무엇인지요?

A. 어느 분이 최초로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지 맞벌이 부모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준 고마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학년뿐만 아니라 6학년 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돌봄만으로도 감사한데 센터에서 방학기간에는 점심식사를, 개학 후에는 저녁식사를, 게다가 간식까지 제공해 주신다는 점이 또 하나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Q. 자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A. 센터에 다니는 우리 아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서 도보 5분 거리, 가까운 곳에 센터가 있고 그 동안 방학기간이면 엄마 없을 때 집에서 TV만 시청 했었는데 이젠 센터에 가서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센터에서 요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식사로 제공되는 반찬들은 어찌나 맛있는지 학교급식과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고 간식도 다양하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매일이 재밌고 지루할 틈이 없는 너무나 좋은 곳을 엄마가 소개시켜 줬다고 합니다.

Q.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된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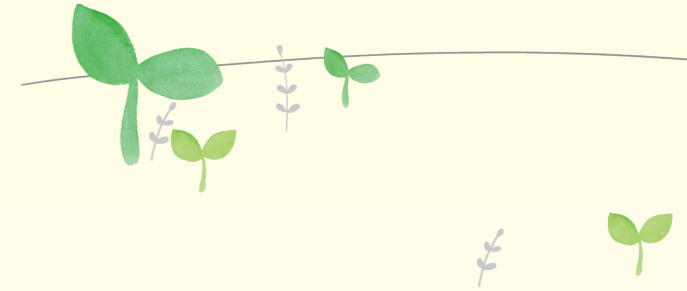
A.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시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담당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용하고 싶은 아이들은 넘쳐나는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2명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제가 다함께 돌봄 센터에 대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들인 6학년까지의 돌봄과 맞벌이가 아닌 일반가정의 자녀 수용은 거의 불가능하고 1~2학년의 저학년 맞벌이 자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교육정책 상 3학년 이상의 어린이 같은 경우 돌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3학년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도 부모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귀가할 때 까지 아이들 스스로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이들은 관심과 돌봄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돌봄센터를 추가로 개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주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천하고 싶으신지요?

A. 주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정말 추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던 다함께 돌봄센터가 생겼다고, 돌봄이 없는 방학때도 아이를 맡기는 문제로 조바심 낼 필요없이 맘껏 회사를 다닐 수 있고, 아이는 알찬 프로그램과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 정말 재밌고 즐겁게 생활할 것이다"라고 하고 싶지만 마음 한편에선 다른 아이가 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아이가 나가야 할 수도 있으니 마음 편하게 추천하기가 머뭇거리 집니다.

Q. 충남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A. 다양하고 많은 정책과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정책과 서비스가 출산율 상승에 기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아이 양육과 돌봄이 부담되지 않는 다함께 돌봄처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계속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누구 부모의 아이들이기 전 우리나라의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도 보장될 것입니다. 하루 5~6시간 정도의 학교생활은 하루 24시간중 적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학교생활 외에 나머지 19시간 18시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야 합니다. 이젠 정말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경력단절이 되고 내 이름이 아닌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사는 삶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여성들의 희생과 부모들의 희생만으로 아이를 키우는 시대는 정말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아이를 함께 키워주고 양육해줄 때 대한민국의 출산율 증가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고금속

서로를 치유하는 돌봄, 요양보호사 이야기



Q.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A. 저는 젊었을 때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결국 살림하고 아이 보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정성으로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베이비시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나이를 먹고 아이도 크다보니 새로운 일을 해야 되었고, 요양보호사 일을 알게 되었고 요양보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의 영역에서 20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Q.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요?

A.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뇌졸중,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재활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고, 거친 요양보호사 문화를 경험하였죠. 제가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야간하고 나서 운전할 하다 보니 안되겠더라고요. 3교대로 근무로 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은 매우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요양보호사로서 제대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좋은 선배님을 만나 일을 잘 배웠습니다. 9개월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몸이 안좋아지고 인원감축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몸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후 재가노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로 오게 되면서 재가노인서비스를 접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일만 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 이용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에서는 교육을 잘 시켜준다고 해서 옳았습니다.

Q. 요양보호사로서 보람있었던 경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저는 제 돌봄대상자가 잘 크거나 성장할 때, 균형을 맞춰주는 쿠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의지가 되고, 서로 대접받고 인정받고 즐겁고, 치유도 되었습니다. 힘든 삶을 살



아가는 순간순간에 힘도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관계에서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예의를 다하고 서로 선을 지켰습니다. 일하면서 농담도 하지만 친밀한 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면 편안한 관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 대접을 받은 경험이 기억에 납니다. 처음에 요양보호사 세계에 들어가니 너무 거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좋은 분들도 만나고 알미운 사람도 만나고 그런 경험을 통해 나도 내 목표를 이루려면 서로 간 잘 지내고 내가 만만하게 보이면 안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대접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요양보호사로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요?

A. 제가 정책연구팀이라고 하니깐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휴식시간은 노동착취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휴식시간이라고 해서 일하는 공간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동착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밤 6시간이 휴식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잘 때 휴식시간이 될 수 없어요. 솔직히 6시간 휴식시간인데 내 볼 일도 못 보고 요양병원에 있어야 해요. 점심시간도 따로 떨어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 곁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책을 정하신다고 하시면 회사원과 다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휴게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점심시간 1시간이지만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6시간 동안 휴게시간이거든요. 밤에 근무해서 어르신들 돌아다니시면 함께 나가야 하고, 잡아 드려야 하고, 쫓아 다녀야 해요. 병원은 3교대라 괜찮지만 실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힘든 경우는 말기 암 환자의 경우나 개인 간병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힘들긴 하지만 배정 받으면 해야 되죠. 요양보호사들이 어려운 사례인 경우 돌아가면서 돌봐드려요. 요양보호사들끼리 서로 암묵적으로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례가 생각나는데요. 재가 서비스를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김장을 하는 거예요. 김치를 담는 게 나중에 보니깐 안해도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면서 몸도 아프고 그랬거든요. 이 경우 중간 관리업체가 자연스럽게 요양보호사를 대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

야기하면 따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가서비스 어르신도 기본 나쁠 수 있잖아요. 계약을 하기 전에 센터에서 미리 공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죠. 장애인활동지원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거든요. 요양보호사도 이런 것들을 표기된 합의서 같은 것을 쓰면 좋겠습니다.

Q. 충남 요양보호사를 대표하여 요양보호사 관련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아웃소싱하는 업체는 일체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다가 여기 천안재가센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교육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기저귀 케어할 때 외엔 터치하지 않아야 하고, 외모평가나 상처가 될 수 있는 농담하지 않는 것들을 배웠어요. 요양보호사를 지킬 수 있는 안전대책도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일하면서 맥락과 흐름이 있는대요. 녹음기라든가, 업무상 필요한 CCTV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폭력이나 안좋은 일을 겪는 사례들이 있으면 저도 무섭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돌봄은 서로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돌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 서비스직으로 분류되는 것 같은대요.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인 상식, 정체성, 인성 등 더 근본적인 소양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을 받고 돌봐주는 것이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책임, 의무, 전문성, 최저시급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대요, 그래도 내 직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상식을 지키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문가로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정체성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저는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아직 꿈이 있어요. 시립요양원이 생기면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팀장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장애인부모 정해남

우리 아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그 날까지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26세 발달장애인 부모입니다. 장애인 부모로 사는 게 처음이라 많이 '힘들다'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이만을 위하여 부모로서 지금까지도 진행형으로 노력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6년 동안 아이에게 오롯이 자력으로 치료하고 케어하다 보니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부모가 돌봄 생활을 계속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막연함에 매일 고민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Q.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시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지요?

A.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전문가들의 멘토를 받고자 했지만, 발달장애에 대한 견해가 부족하다보니 그에 따른 부모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온전히 부모의 정보로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기존 장애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교육 중심인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차별화, 다양화하여 많은 서비스를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 돌봄에 있어서 당사자 위주의 서비스라기보다는 제공자들 편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 기관에서의 프로그램은 선택하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만, 양보다 질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 다양하게 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애인을 데리고 갈 곳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가령 비장애인들은 키즈카페, 도서관 등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그런 대중시설을 자유롭게 접할 수가 없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공격행동(자해, 타해), 돌발행동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마음껏 책을 보거나 놀 수 있는 공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은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의문이기

도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원센터는 획일적인 프로그램과 주말에는 폐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시설을 이용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청소년기 지원사업으로 방과 후 활동,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립·자활센터에 따른 서비스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 자조모임, 장애인 자조모임, 성인장애인 자조모임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들이 사회문제,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가족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적3급 장애인을 키우면서 의료비, 치료비 등 모든 곳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그 동안 아이에게 쓰여진 치료비, 교육비와 엄마인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것까지 한다면 금전적인 부담이 컸다고 봅니다.

Q. 충남의 장애인 돌봄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A. 이렇게 아이에게 치료하고, 관리하였지만 복지혜택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충남 장애인 돌봄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바라는 점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현실성 있고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교육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3급까지 확대 실시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3급의 경우는 성폭력, 금융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셋. 성인장애인들의 자립·자활에 대한 제도, 서비스 제공 부탁드립니다. 성인자조모임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배워가며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 교육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가족들 또한 올바른 양육, 훈육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컨설팅 받으며 성인지, 노년기에 사회참여의 기회와 자립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3급의 경우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충남문화재단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발달장애인과 혜전대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문화예술활동을 진행)

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연금 대상자에서 중증장애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시급하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지 않으니 부모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보도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의 미래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도 두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사회활동도 어렵고 연금혜택도 없으니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겠다는 부모들이 발생하여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거듭 바랍니다. 저는 장애 아이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를 목표로 삼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26세 발달장애, 지적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개인적인 이야기이며 앞으로의 바램이라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Chungcheongnam-do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32416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화로 10-22 충남전문건설회관 5층
Tel. 041) 330-2400 Fax. 041) 330-2498~9
cn.pass.or.kr

발간위원

- 안치용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대외협력관)
- 정덕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팀장)
- 최승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팀장)
- 이상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지원팀장)
- 이영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시설지원팀장)
- 박선욱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복지협력팀장)
- 이수영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집필진

- 최인덕(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덕진(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팀장)
- 이정랑(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 최영자(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천안종합재가센터장)
- 정지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부여공동육아나눔터 팀장)
- 정지희(신월다함께돌봄센터 이용 학부모)
- 고금숙(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천안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 황수지(부여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정해남(충청남도 장애인부모, 다농팜 & 카페 운영자)

- 복지정책 이슈 및 충청남도 복지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본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 및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정기간행물입니다.
- 발간에 관련된 문의사항과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정책연구팀 (041-330-2439, free1088@cn.pass.or.kr)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충청남도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